

## ■ 2025년도 시각예술 창작주체 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시각예술 창작주체 사업
- 회의일시
  - (1차) 2024년 12월 10일(화) 14:00~18:00
  - (2차) 2024년 12월 23일(월) - 2024년 12월 24일(화) 10:00~18:00
- 회의장소 : (1차)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2차) 오라카이 대학로 호텔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기혜경, 김영동, 박수진, 이윤희, 이현

2025년도 <시각예술 창작주체> 지원 사업은 시각예술 현장의 중추적인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는 공간 운영 주체의 단기 및 중장기적 활동 여건을 보장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제고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단년(1년) 또는 2025~2027년까지의 다년(3년) 프로젝트를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심의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시각예술 창작주체> 사업은 사전 공개된 심의위원들이 보조 사업 선정부터 평가, 모니터링까지 연속 수행하는 전담심의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대상은 행정결격을 제외한 총 87건이었으며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심의를 통해 최종 1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1차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전수 심의하고, 시스템에 각 결과를 입력, 총합을 도출하여 상위순으로 2차 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기준은 공지된 대로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단년 40%, 다년 50%), 사업 목표와 계획의 충실성(공통 30%), 사업안의 현장 파급력 및 기대 효과(단년 30%, 다년 20%)였습니다.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역량이 심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듯이, 1차 서류 심의에서는 지원자의 활동 이력과 1년 또는 3년간의 성실한 사업 수행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다년 지원자의 입장에서 향후 3년간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지만, 최대한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안을 도출하여 결과물의 구체성과 지원 사업의 의의를 획득할 수 있는 지원서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보편적인 타당성과 대중성, 프로젝트로 얻을 수 있는 예술적 성취를 중요한 기준으로 염두에 두었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는 모든 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위원별로 사업을 배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문안을 사전 준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터뷰에서는 종합 및 심층 차원의 질의가 진행되어 지원서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모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

다수 지원자의 역량이 출중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활동 내용과 예산 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년 사업은 단년 사업보다 지속적인 책임과 성실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2차 인터뷰 심의에서 예산안의 합리성과 설득력,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예술계에서의 기여도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단년 사업은 국내외 작가 단체전을 위한 계획안이 다수였는데, 설립 n주년을 맞아 기관의 정체성을 확장 및 쇄신하려는 계획안, 동시대 미술환경에서 예술의 공적 가치를 고민하는 계획안, 그리고 향후 성장을 위해 비전을 재점검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한 계획안들이 돋보였습니다. 2차 심의 역시 각 위원들의 인터뷰 심의 결과를 총합하여 총 17팀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자를 도출했습니다. 최종 합산 결과가 각 위원들의 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결과에 대한 예외적인 조정 없이 합의되었습니다.

반면 다년 사업에는 국내 미술계에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아 온 중견 기관뿐만 아니라, 영향력 확장 및 안정된 운영 환경을 모색하는 신진 단체 등 다양한 창작 주체가 지원했습니다. 다년 사업의 경우 3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심의위원들이 더욱 엄정한 기준을 세워 계획안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2차 인터뷰 심의에서도 사업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해 공공 기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때 심의위원들이 공통으로 합의한 심의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수행 역량. 3년간 진행되는 수많은 전시와 행사,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인원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을 수행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둘째, 운영 자원. 공공 기관이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형식이 아니라 유능한 단체가 더 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구조인지,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셋째, 사업의 구체성. 3년간의 계획을 미리 구상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변수가 많다는 사실은 알지만, 결과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은 일부 계획서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넷째, 공공성과 개방성. 본 사업으로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받거나 관객 유치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계획서는 감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계획의 독창성과 파급력. 특히 유구한 역사를 지닌 기관의 경우, 관행적인 기금 지원을 넘어 새로운 예술적 성취를 위한 차별화된 기획과 내용을 설계했는지를 기준 삼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 계획안의 구체성, 계획과 일치하는 예산안의 현실성, 공적 지원 사업에 부응하는 공공 환류 노력과 확산 가능성, 객관적인 사

업 평가 방안,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 인력, 장기 지원 사업의 차별성과 보편적인 타당성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년지원의 경우 3개년 연속 지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간의 안정적인 공간 운영과 더불어 긴 호흡의 준비과정을 포함한 중장기 기획도 일부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획안은 찾아보기 힘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의 예술적 성취도와 발전, 예술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 의의와 가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본 지원 사업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연속해서 지원금을 수혜받는 사업 주체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내용임에도 기금을 대폭 확대해 신청하거나 예산 과장을 위해 무리하게 프로그램 수와 규모를 증폭한 사례가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논의하여 합의한 바, 단년과 다년 사업 모두 계획안에 서술한 내용과 비교해 요청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들은 합리적인 지원적정액을 조정, 산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루고 기금 오남용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2025년도 <시각예술 창작주체> 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 잔여금을 감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 이상 배정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술위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지원 단가를 높게 책정한 만큼, 추후 더욱 충분한 역량을 지닌 주체들이 활동의 다양성과 개척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정된 지원자들에게는 예술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 단년과 다년 선정자 모두 사업 추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시각예술 창작주체 심의위원회 일동